

수출 유망 중소기업 1천개사 지원

정부는 수출유망중소기업 1,000개사를 지정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5개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오영교 차관은 지방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국내 로드쇼 현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책을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코트라 중진공 등으로 구성된 수출지원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정하며 이미 약 300여개 업체가 선정돼 있다고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점별 한도의 우선지원 대상업체로 분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해당업체는 대출자금의 50%에 대해선 시중금리가 적용되거나 나머지 50%는 연리 3%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차관은 부산 창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세계시장의 지식 집약화, 소량 다품종화 추세와 사이버무역의 확산으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지적한 뒤 "전국의 11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5월말 현재 중소기업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0.3% 증가했으며 수출비중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32.6%에서 36%로 늘어났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면 된다.

■ 지방 중소기업청 전화번호

지 역	전 화 번 호
서울청	(02)509-7010~1
부산울산청	051)335-4032
대구경북청	053)659-2204~13
광주전남청	062)360-9103~12
경기청	031)290-6904~16
인천청	032)450-1113~18
강원청	033)258-3511~18
충북청	042)230-5311~23
전북청	063)2132-2914
경남청	055)268-2510~24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에 대한 우대지원 사항

1. 중소기업청

우대 지원 내용	지원 가능시기	우대 지원 내용	지원 가능시기
1.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사업 대상자 선정시 5% 가점	2000. 7. 1	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대상자 선정시 수출관련 사항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반영	시행중

우대 지원 내용	지원 가능시기	우대 지원 내용	지원 가능시기
3. 병역특례법 대상업체 선정시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2000. 7. 1	5. 수출촉진단파견 대상업체 선정시 당해업체가 획득한 점수의 30% 가점	2000. 7. 1
4. 외국인 산업연수생 대상업체 지정시 우대	2000. 7. 1	6.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업체 선정시 5% 가점	2000. 7. 1

2. 중소기업진흥공단

우대 지원 내용	지원 가능시기	우대 지원 내용	지원 가능시기
1.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대상업체 선정시 5% 가점	시행중	6. 기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우선 지원	시행중
2.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 ○ 동자금중 일정액(약 300억원)을 무역금융화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우선 지원(중기청과 협의 후 집행)	시행중 6월중 시행예정	○ 인터넷 마케팅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무료 구축 및 전자카탈로그 무료 제작	
3. 생산원가절감지도시 지도부담금 50% 할인	시행중	○ 수출인규베이터 사업에의 참여 우선 지원	
4. 수출컨설팅 지원 ○ 3일간 무료지원, 3일 추가지원시 추가비용의 60% 지원	시행중	○ 품목별 잠재바이어 발굴, 선진국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시장조사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BEST OF KOREA" 사업시 우선지원	
5. 제품 홍보지원 ○ Korea Buyers Guide지 인터넷 무역일보 "Trade-news.com" 게재비용의 60% 지원	시행중	○ 기타 종합상사 및 전문무역상사 수출연계 지원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대 지원 내용	지원 가능시기	우대 지원 내용	지원 가능시기
1.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시 우선 지원 ○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시 우선 상담주선, 상담장소 제공 바이어 정보제공 및 통역지원 등	2000. 7. 1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시 우선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시 우선 선정,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현지 상담장소 제공, 호텔 및 항공편 예약지원 등	2000. 7. 1

우 대 지 원 내 용	지원 가능시기
3.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시 우선 지원 ○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업체 선정시 5% 가점 부여, 참가경비 일부지원, 전시물품 통관 및 부스설계 지원 등	2000.7.1

4. 수출보험공사

우 대 지 원 내 용	지원 가능시기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보증한도의 특별책정	시행중
2. 단기 수출보험(선적후) ○ 인수한도의 특별책정	시행중
3.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추가 할인 ○ 수출유망중소기업인 경우 보험료 및 보증료를 중소기업할인률(5%) 이외에 추가 20% 할인(총 32.5%)	2000.6월중 시행예정
4. 신용적색거래국에 L/C 수출하는 경우 부보 및 보증지원 ○ 신용적색거래국과의 신용장 방식 수출거래에서 해외시장개척 및 시장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00.6월중 시행예정
5. 기타 신용조사결과 정보의 무료제공 ○ 가공·처리한 수입업자 신용정보자료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 제공	시행중

5. 신용보증기금

우 대 지 원 내 용	지원 가능시기
1. 수출 및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이 L/C로 수출하는 경우 신용장기준 원자재구매에 따른 무역금융(동일 기업당 〇〇억원 이내) 해당액에 대한 보증서 발급	2000.6월중 시행예정
2. 동일 기업당 보증한도, 운전자금보증, 보증심사방법시 우대 지원	지원중

6. 기술신용보증기금

우 대 지 원 내 용	지원 가능시기
1. 수출 및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이 L/C로 수출하는 경우 L/V금액의 일정액(80% 수준)까지 보증서 발급 ○ 추정매출액 등 적용	시행중
2. 무역금융보증, 환어음담보부 보증, 보증심사방법, 무역어음인수 보증, 수입신용장 발행 보증등 우대	

7. 생산기술연구원

우 대 지 원 내 용	지원 가능시기
1. 기업체수탁 개발사업 대상자 선정평가지 10% 가점 2. 현장생산기술자문사업 수행시 우선지원 3. 연구장비·시설등의 무료 및 우선이용	2000.6월중 규정개정 매년도 평가지침에 적용 시행중

8. 산업기술정보원

우 대 지 원 내 용	지원 가능시기
1. 종합기업서비스 정보망(Inno-NET)을 통한 우선지원	시행중
2. 정보조사 분석지원 ○ 특정품목 수출입관련 정보조사, 국내외 지적재산권관련정보등 기업이 요구하는 정보를 30% 할인하여 제공	시행중
3. 정보검색(KINITI-IR)시 30%이 요금할인 적용	시행중
4. 기술관련보고서 및 CD, CD-ROM 20% 할인 보급	시행중

9. 산업디자인진흥원

우 대 지 원 내 용	지원 가능시기
1. 디자인혁신지원사업 1차 평가지 10점 가점 부여	2000. 6월부터 시행
2. 산업기술개발용자사업 평가지 10점 가점 부여	2000. 6월부터 시행

10. 한국은행

우 대 지 원 내 용	지원 가능시기
1. 총액한도대출 지점별 한도의 우선지원 대상업체로 우대 ○ 대출자금중 일부(50% 정도)를 금리 연 3%로 우대하여 대출	센터별로 한국은행과 협약(관련자료 별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평가사업

중소기업청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 하여 집중 육성하고, 기술평가제도의 건실한 발전

을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기술경쟁력 평가사업”이 6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술경쟁력평가 대상기업은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현재 정상 가동중이고 기술력평가를 희망하는 기업이며 올해에 1,500여개 중소기업을 평가할 계획이다.

기술평가는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이공 및 경상계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기술사, 경영·기술지도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서 중기청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

문인력을 활용하여 지방중기청에서 실시한다.

평가기준은 중기청이 전문가를 활용하여 개발한 평가지표로서 기술개발능력과 제품화능력, 생산화능력 등 기업의 기술경영능력과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의 수준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청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을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술혁신개발자금, 기술지도 등 중기청의 기술지원사업 지원시 우대하며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기업대출시 우대 지원한다.

중소기업 ‘돈가뭄’ 목탄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금사정악화로 올하반기에 설비투자를 억제할 것으로 보여 주요시설재인 전기기자재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최근들어 유류가격 상승이 원자재가격에 연동 현상을 초래, 업계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전국의 43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사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올 1/4분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월이후 하반기중에 자금사정이 다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41%, 매우 악화가 5%, 대체로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36%로 나타난데 비해 원활할 것이라는 전망은 18%에 머물렀다. 전기공업계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설비투자를 최대한 억제, 주요시설재인 전기기자재 수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기자재의 주요수요처인 산업체들이 설비투자를 억제하면 전기기자재수요도 하강곡선을 긋는 것이 보통인데 최근들어 일부 민

수부분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하반기에도 자금사정이 풀릴 것 같지 않아 힘겨운 한해를 보내야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공업계에 신규 업체들이 많이 생겨난데다 일부 기업들이 생산물량을 늘려 현시장규모에서도 공급물량을 소화해 내는데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상승도 올하반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원자재가격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지속,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가격인상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관계자들은 민수의 경우 경제동향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대응책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전등 관납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달청, 에너지저소비제품 구매 확대

조달청은 범정부차원의 에너지절약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에너지저소비제품의 구매 대상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8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기자재(6품목), 절전형 사무 가전기기(10품목) 등 24개 품목에서 에너지저소비제품을 구매해 왔으나 7월부터 8개 품목을 추가, 구매대상 품목을 총 32개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이나 절전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된 제품으로 제한, 해당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에너지저소비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달청의 에너지저소비제품 구매 공급 규모는 지난해 21억 5,000만원에서 올해 약 4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에너지저소비제품의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절약형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에너지절약제품의 기술개발을 앞당기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구매대상 품목〉

▲ 고효율에너지 인증기자재 : 14품목(인증표시)

기 존 (8품목)
고효율전동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전기, 전구식형광등기구,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각,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폐열회수형환기장치, 고기밀성단열창호

⇒

추 가 (6품목)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가정용가스보일러, 고효율펌프, 원심식냉동기, 모니터절전기, 무정전전원장치

▲ 효율등급표시 기자재 : 8품목(1~5급)

기 존 (6품목)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전기, 승용차

⇒

추 가 (2품목)
전구식형광등기구, 전기세탁기

▲ 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 10품목(에너지절약마크)

기 존 (10품목)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모니터일체형, 프린터, 팩시밀리, 프린터팩시밀리겸용기, 복사기, 텔레비전수상기,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텔레비전비디오일체형

⇒

추 가 (없음)
추가 품목 없음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가 7월 1일부터 종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또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도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 공사에서 2천만원이상 공사로 전면 개선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 사업장을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연 면적이 330m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공사와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 사업장은 오는 8월 14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를 오는 9월 8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의 소급징수와 함께 가산금, 연체료,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전의 산업재해 적용 사업장은 건설공사 중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주거용 건물은 661mm², 비주거용 건물은 495mm² 이상의 건축공사와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포함됐다.

해외시장 개척 본격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하반기에 19회의 수출상담회와 35회의 해외시장개척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수출상담회 개최 및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상반기 중 개최한 28회의 수출상담회에 2,400여 국내 중소기업 수출업체가 참가, 5억3천만달러의 수출계약과 21억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제2의 중동특수붐이 일면서 쿠웨이트를 비롯한 리야드, 카이로에 기계설비 시장개척단 파견 등 중동지역 79개 주요 거점도시에

27개 시장개척단과 314개사의 중소기업을 파견해 3억3천만달러의 계약실적과 11억2천만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KOTRA는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체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9회의 수출상담회와 35회의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중동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정보통신부품 수출상담회, 기계류 수출상담회 등 19회 상담회에는 약 2천여명의 해외바이어를 유치, 2억달러의 수출계약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 35회에 걸쳐 600여개사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는 KOTRA는 기계플랜트를 비롯한 부품소재, 전기전자, 벤처문화상품 등 핵심 전략상품과 고부가가치품목 위주로 시개단을 구성, 파견할 예정이다.

파견지역도 북미, 유럽 등 전통시장 편중에서 벗어나 중동, 중남미, 서남아 등 신흥시장으로 파견

을 확대해 중소벤처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개척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내 부품소재 유망업체들에게 안정적인 공급선을 제공하기 위해 르노, 푸조, 폭스바겐 등 자동차 메이커사 구매단을 초청할 계획이며 중동특수를 겨냥,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쿠웨이트 등 중동 GCC 국가들을 국내로 초청할 예정이다.

■ 하반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일정

파견시기	주 최	파견국가	파 견 지 역
7. 18~ 26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중국	북경, 상해, 대련
8. 28~9. 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동	카이로, 베이루트, 리야드
9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동남아	호치민, 방콕
"	경기도	구주	마드리드, 밀라노, 프라하
"	경남	중남미	멕시코시티, 상파울로, 부에노스아이레스
"	경북	아시아	뉴델리, 데카, 호치민
"	인천광역시	중동	테헤란, 이스탄불, 텔아비브
"	인천광역시	중화권	홍콩, 타이베이, 북경
"	전북	중동	카이로, 아테네, 베이루트
"	충북	동구	모스크바, 바르샤바, 부블리아나
"	부품·소재	북유럽	코펜하겐, 오슬로, 스톡홀름, 헬싱키
"	수출기업화	동남아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	섬유직물조합	중남미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울루, 과테말라
9. 24~10. 5	인쇄물연합회	북미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9. 25~ 30	여성경제연합회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동경
9월	벤처·문화	북미	뉴욕, LA
10월	대전광역시	중국	광저우, 남경
"	전남	동남아	싱가포르, 뉴델리, 쿠알라룸푸르
"	대구광역시	중동	카이로, 리야드, 테헤란
"	인천광역시	동남아	호치민, 자카르타, 마닐라
"	인천광역시	아시아	북경, 도쿄, 싱가포르
"	전북	북미	뉴욕, LA, 멕시코시티
"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동남아	싱가포르, 홍콩, 방콕
"	광주광역시	중남미	상파울로, 산티아고, 파나마
11월	경기도	중동	카이로, 리야드, 하라레
"	제주도	중국·동남아	홍콩, 싱가포르, 북경
11. 9~19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북유럽	스톡홀름, 오슬로, 헬싱키
11. 11~21	기계산업진흥회	중동	테헤란, 카사블랑카, 이스탄불
11월	경북	중남미	상파울로, 파나마, 산티아고
"	부산광역시	유럽	밀라노, 부다페스트, 암스텔담
"	부산광역시	북미	마이애미, 리마, 산티아고
12월	금형조합	유럽	리옹, 밀라노
4/4분기	건설장비 및 기계류	중동	두바이, 테헤란, 무스카트
"	벤처·문화	유럽	파리, 런던, 프랑크푸르트

■ KOTRA 하반기 상담회 개최 계획

개최시기	상 담 회 명	품 목	담당부서	연 락 처
8. 1	중동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종합품목	인천무역관	032-421-6465
8. 28	정보통신부품 수출상담회	정보통신부품	사업개발부	02-3460-7225
8. 28	서부캐나다 구매단 초청 수출상담회		거래알선부	02-3460-7234
8. 31	기계류 수출상담회	기계류 및 산업설비	거래알선부	
9. 1	기계류 수출상담회	기계류 및 산업설비	인천무역관	
9. 15	중남미지역 수출상담회	종합품목	경기무역관	
10. 23	아시아지역 수출상담회	종합품목	거래알선부	
10. 25	아시아지역 수출상담회	종합품목	부산무역관	051-463-3691
11. 22	자동차부품 수출상담회	자동차부품	사업개발부	
11. 28	자동차부품 수출상담회		사업개발부	

수출 증가속도 둔화 우려

올해 하반기중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7월 10일 발표한 '최근의 수출입동향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하반기중 수출은 미국경제 성장 둔화, 원화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 **상반기 수출**=올해 상반기중 수출(통관기준)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화공품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60억달러보다 170억달러(전년 하반기대비 53억달러) 늘어난 830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년해대비 상반기중 수출 증가율은 25.7%로 반기실적으로는 1995년 하반기의 27.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상반기 수입**=상반기중 수입(통관기준)은 내수 및 수출의 호조와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3억달러보다 243억달러(전년 하반기 대비 132억달러) 증가한 786억달러를 시현했다.

상반기중 수입 증가율은 44.7%로 반기 실적으로는 제2차 석유파동이 발생하였던 1979년 상반기(49.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수입 증가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수출의 호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 무역수지(통관기준 수출입차) 흑자규모는 전년동기의 117억달러보다 약 73억달러 축소된 43억 5천만달러를 나타냈다.

특히 일본 및 중동에 대한 무역수지에서 적자폭이 확대돼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중 대일본 무역수지는 전기전자부품, 기계류 등의 수입 증가로 적자폭이 전년동기의

29억달러에서 51억달러로 확대되었고 대중동 무역수지도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으로 적자폭이 같은 기간중 20억달러에서 68억달러로 확대됐다.

▲ **하반기 수출**=하반기중 수출 금액은 상반기보다 50억달러 늘어난 880억달러로 예상되며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상반기중의 25.7%에서 13%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한 견실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간 수출액은 지난해대비 19% 증가한 1,710억달러 내외로 예상됐다.

▲ **하반기 수입**=하반기중 수입도 증가속도가 둔화되었으나 내수호조 및 고유가 지속으로 수출보다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하반기중 수입 금액은 상반기보다 53억달러 늘어난 839억달러로 예상되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상반기의 44.7%에서 28%로 낮아질 전망이다.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1,625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중 무역수지(통관기준 수출입차)는 상반기(44억달러)와 비슷한 41억달러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으며 연간으로는 흑자규모가 전년의 239억달러보다 154억달러 축소된 85억달러 내외에 머물 전망이다.

▲ **품목별 수출**=하반기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을 주요 수출기업,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기·전자제품이 호조를 지속하고 자동차, 기계류, 화공품 등도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철강·금속제품, 선박, 섬유류 등은 부진할 전망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총 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따른 수요 증대에 힘입어 1~5월중 34.5%

늘어난데 이어 6~12월 중에도 3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연간 32% 증가한 634억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D램 모듈 포함해 지난해 전기·전자 수출중 42%의 비중을 차지한 반도체의 수출은 해외 반도체 수요증가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할 것이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전년동기중의 급증에 따른 반사 효과로 1~5월중의 26%에서 18%로 낮아질 전망이다.(연간으로는 21% 증가한 245억달러)

전기·전자 수출중 42%의 비중을 보인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은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를 중심으로 1~5월중의 46%보다 약간 높은 50%의 신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연간으로는 49% 증가한 263억달러)

또한 자동차, 기계류, 화공품 등도 1~5월 중에 비해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6~12월 중 각각 12~19%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수출은 품질 이미지 개선, 신차종 투입, 마케팅 강화 등에 힘입어 1~5월중 21% 늘어난데 이어 6~12월 중에도 13% 증가해 연간 16% 증가한 1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류 수출은 동남아시아의 수요회복 등으로 견실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5월중의 36%에서 6~12월 중에는 12%로 낮아질 전망이다.(연간으로는 21% 증가한 111억달러)

화공품 수출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의 큰 폭 상승으로 1~5월중 43% 늘어났으나 6~12월 중에는 19% 증가로 둔화돼 연간으로는 28% 증가한 120억달러에 머물 전망이다.

내수호조의 영향으로 물량증가세가 지난해의 5.1%에서 4%로 둔화될 것이나 수출단가는 1999

년 0.7% 하락에서 2000년 24%의 큰 폭의 상승으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철강·금속제품, 선박 및 섬유류는 전년동기중의 부진에 따른 반사효과로 1~5월중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나 6~12월 중에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1~5월중 22% 증가하였던 철강·금속제품 수출은 6~12월 중에는 미국 등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 7% 증가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연간으로는 13% 증가한 116억달러)

선박 수출은 1~5월중 2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6~12월 중에는 전년동기 수준에 머물 전망(연간으로는 9% 증가한 82억달러)이며 섬유류 수출은 49%의 수출비중을 차지하는 직물 수

출의 호조에 힘입어 1~5월중 15% 증가하였으나 6~12월 중에는 전년동기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연간으로 7% 증가한 175억달러)

▲ 품목별 수입=6~12월중 수입 전망을 원유와 원유를 제외한 여타 품목으로 나누어 보면 전년동기대비 원유 수입 증가율은 도입단가의 상승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1~5월중의 117%에서 6~12월 중에는 26.8%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연간으로는 54% 증가한 228억달러)

여타 품목들의 수입증가율은 1~5월중 40.5%에 비해 낮아지겠지만 원유보다는 다소 높은 28.6%를 나타낼 전망이다.(연간으로는 33% 증가한 1,397억달러)

■ 품목별 수출전망(통관기준)

(단위 : 억달러)

	1998	1999			2000		
		1~5월	6~12월	연 간	1~5월	6~12월	연 간
전기·전자제품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353.6(-5.6) 170.1(-2.4) 100.0(-3.5)	177.6(22.8) 75.6(10.7) 62.5(59.5)	304.3(45.6) 127.1(24.9) 114.5(88.3)	481.9(36.3) 202.7(19.2) 177.0(14.9)	238.9(34.5) 95.1(25.8) 91.4(46.2)	395.1(29.8) 149.9(17.9) 171.6(49.9)	634(31.6) 245(20.9) 263(48.6)
자동차	112.5(-7.6)	45.1(5.5)	84.2(20.7)	129.3(14.9)	54.7(21.2)	95.3(13.2)	150(16.0)
기계류·정밀기기	89.9(-5.3)	33.6(-10.9)	58.5(12.2)	92.1(2.5)	45.7(35.9)	65.3(11.6)	111(20.5)
철강·금속제품	111.2(11.8)	39.6(-19.9)	63.4(2.9)	103.1(-7.3)	48.4(22.2)	67.6(6.5)	116(12.5)
선박	80.1(22.9)	24.7(2.1)	50.2(-10.3)	74.9(-6.5)	31.3(26.6)	50.7(1.0)	82(9.5)
화공품	90.2(-3.4)	34.7(-11.6)	59.4(16.7)	94.1(4.3)	49.5(42.8)	70.5(18.6)	120(27.5)
석유제품	45.8(-14.1)	17.3(-18.1)	40.4(63.3)	57.7(25.9)	33.5(93.9)	46.5(15.0)	80(38.6)
섬유류	158.7(-9.2)	61.5(-6.8)	102.7(10.8)	164.2(3.5)	71.0(15.3)	104.0(1.3)	175(6.6)



■ 수출·입 전망

(단위 : 억달러)

	1998	1999			2000		
		상 반	하 반	연 간	상 반	하 반	연 간
수 출	1,323.1 (-2.8)	660.0 (-1.7)	776.9 (19.1)	1,436.9 (8.6)	829.8 (25.7)	880 (13.3)	1,710 (19.0)
수 입	932.8 (-35.5)	543.3 (15.1)	654.3 (42.0)	1,197.5 (28.4)	786.3 (44.7)	839 (28.2)	1,625 (35.7)
수출입자	390.3	116.7	122.6	239.3	43.5	41	85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합성수지의 대동남아 수출가격 추이

(단위 : 달러, MT)

	1999				2000					
	1/4	2/4	3/4	4/4	1	2	3	4	5	6월23일
HDPE	465	568	623	725	625	715	725	685	630	670
LDPE	570	627	697	802	705	765	815	750	705	755
PP	413	512	568	640	510	630	630	565	550	605

